

# “코로나 때보다 장사 안돼...이대론 올해 버티기도 빠듯”

### ‘불금’에 찾아가 본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 거리 인적 없어 썰렁...한집 건너 ‘임대문의’ 현수막·문 닫은 점포 권리금 사라지고 임대료 반토막...불야성 젊음의 거리 쇠락의 길

“요즘 구시청에서 장사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황금라인’으로 불리던 구시청 사거리조차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찾은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광주 동구 불로동-광산동). 금요일 밤을 맞았지만 ‘불금’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 일대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총장로 17가에서 구시청 방향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는 순간 마주한 골목은, 공실 사이로 영업중인 몇몇 점포를 제외하면 과거 ‘젊음의 거리’라고 불렸던 것과는 달리 활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건물 소인도에는 ‘임대문의’와 후대전화 번호가 적힌 현수막이 나붙어있었고, 출입 자재를 막아둔 건물도 많았다.

구시청을 대표하는 광주풀리 조형물인 황금색 ‘열린공간’을 중심으로 둔 사거리 조차 금요일 저녁임에도 행인 10여명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5-6년 전 만해도 주말 밤이면 인파에 떠밀려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웠던 곳이지만, 노른자 땅이라

는 사거리 점포들도 편의점과 주점 한 곳을 제외하면 비어있거나 영업을 중단 중이었다.

1층 점포가 비어있으니 2층 이상의 점포가 영업 중일지 만무. 한 건물의 경우 1층에 영업 중인 주점을 제외하면 2-5층, 지하까지 모두 비어있었다.

그나마 문을 연 점포라고 해도 손님이 단 한 명도 없거나, 비어있는 의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새벽녘 시민들이 자주 찾았던 해장집도 영업을 종료한 지 오래됐다는 게 주변 상인의 얘기다.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A씨는 “솔직히 올해 들어 코로나 때보다도 수입이 줄었다. 이대로라면 올해를 버티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구시청 사거리는 과거 90년대까지 총장로와 함께 유일한 광주 상권으로 불렸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클럽문화의 확산으로 ‘뽕뽕’, ‘거품’, ‘지직스’ 등을 찾는 20-30대가 주를 이루면서 불야성을 이뤘다.

그러나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첨단, 동명동 등 광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 메인사거리에 위치한 한 상가의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공실로 비어있다.

주시내 곳곳으로 상권이 확장되면서, 주요 방문층인 20-30대의 수요가 분산됐다.

한 때 광주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자랑했던 구시청은 현재 임대료가 과거에 견줘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열린공간 사거리에 위치한

점포 대다수도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림(41) 광주연합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구시청 사거리 일대 상가는 지난해 중순까지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많게는 1억까지도 권리금을 내고라

도 들어가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무권리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가거나 가까운 동명동 쪽으로 옮기려는 자영업자들만 남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청 상권 자체가 죽어버려, 최근에는 개업 위치를 알아보는 고객분들 중, 구시청 상권을 알아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자체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를 지정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점이 위치하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이 들어서려는 것만 보더라도 구시청의 쇠락을 알 수 있다.

지난 2023년 열린공간에서 불과 50여 m 떨어진 곳에는 주점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363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기도 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구시청 상권은 현재 10개 상가 중 6개 이상은 공실인 상황인데, 클럽, 나이트 등 유흥시설 등 즐길거리도 사라진 만큼 젊은 세대가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는 회생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구시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상인 지원책을 펴도 모자랄 판국에 상권 인근에 오피스텔을 짓거나 총장로와 구시청을 잇는 등 상권 허리를 끊어버리는 정책 방향성도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재기부 지역사랑 나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재기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20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고, 광주·전남 지자체에 1억 3300여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쌀·잡곡·생활용품 등 240여점의 답례품과 광주은행이 별도로 마련한 쌀 460포대, 3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전라남도 여수시공동체 및 목포시 취약계층, 광주시 소재 48개 복지관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고, 지난 2월 광주·전남·서울 용산 등지에서 영업본부별로 고향사랑기부제 가드캠페인을 벌였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지자체에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광주은행 임원들은 2000만 원을 기부하며 기부 동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새 기준 적용에도 여전히 세계 1위

### 기업부채 비율은 4→5위 떨어져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이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르면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세계 2위인 홍콩(93.3%)과의 격차가 7.1%p에서 0.2%p로 축소됐으나,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를 크게 웃도는 1위를 유지했다.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 5위권 국가들과도 차이가 작지 않았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114.5%로 종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홍콩이 258.0%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166.5%), 싱가포르(130.6%) 등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한은과 기재부는 옛 기준 연도에 따른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을 각각 100.4%와 122.3%로 추산한 데 비해 IIF는 이를 100.1%와 125.2%로 조금씩 다르게 제시한 차이가 있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에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인데, 당장 한국의 기준 연도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매종드 신세계’

### 침구류 최대 70% 할인 주방용품 60% 할인 판매

광주신세계는 오는 13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매종드 신세계’를 진행한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알레르망’, ‘운현궁’ 등 침구 브랜드의 침구류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우선 ‘알레르망 스탠다드 사계절 차렵이불’ (싱글 사이즈)은 5만9000원, ‘운현궁 냉감 쿨패드’ (싱글 사이즈)는 9만 4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 밖에도 ‘코지네스트 레노마홈 냉감 바디 쿠션’과 ‘구포컬렉션 냉감 톨소파’ 등을 각각 6만 9600원, 7만 9000원의 특가에 내놨다.

주방용품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복셀 단면 싱클프라이팬’ (26cm)을 3만 8000원, ‘WMF 아르구스 프라이팬’ (24+28cm)은 6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눓담 육면기(중)’와 ‘쿠첸프로피 까사밀라 뉴로사 양수냄비’도 각각 7만 9000원, 4만 3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침구류, 주방용품 외에도 ‘바



디프렌드’와 ‘세라레’ 등 안마전문 브랜드 제품도 선보인다.

바디프렌드는 대표 제품인 ‘킨텀’을 기존 660만 원에, ‘에텐’은 520만 원, ‘다빈치’는 620만 원으로 할인하며, 이번 행사 기간 중 안마의자 구매시 전용 리프트와 탄산수기를 함께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세라레도 ‘마스터V7’을 540만 원, ‘파우제 M4’를 295만 원으로 할인 판매하며, 마스터 제품을 구입하면 리프트와 담요, 흡기 2종(택 1)을 제공한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평소 갖고 싶었던 주방과 침구류 등을 저렴하게 마련할 기회를 광주신세계 매종드 신세계전에서 잡으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는 생활용품 이외에도 안마의자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백내촌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이 여·수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여·수신담당자 교차교육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여·수신담당자 교차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인 은행 창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대부분 여·수신 창구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심화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고객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WM(Wealth Manager) 직원과 중소기업 금융업무와 기업여신을 맡고 있는 RM(Relationship Manager) 직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상호 교차교육을 통해 금융시장 변화 상황과 서로간의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시장, 법인세법, 가계·기업연선 등의 직무 교육을 비롯해 각 업무별 상담 스킬 교육을 실시한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앞으로 매 반기마다 교차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백내촌 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서로 다른 업무의 고객 마케팅 및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며 거리

감을 줄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23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9	21	24	34	35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31,310,711	1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9,958,813	77
3	5개 숫자일치					1,567,684	2,945
4	4개 숫자일치					50,000	147,087
5	3개 숫자일치					5,000	2,456,500

## 해양에너지 등 광주경총 조찬포럼 후원금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양진석·부회장최정)는 지난 7일 제1651회 금요조찬포럼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김선광(부대표성조산업 대표이사, 김용구(부회장) 대하이텍 회장, 이정권(부대표이치글로벌 회장, 정회(부회장)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금요조찬포럼에 후원했다. 금요조찬포럼은 지난 1990년 6월 1일 첫 번째 강연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45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강연까지 1651회로 전국 최장수 포럼이다.

양진석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금요

조찬포럼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금요조찬포럼이 더욱더 알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요조찬포럼 강연에는 제51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현 광주 비엔날레 박람회 대표를 초청해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국제 미술 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넘어 국제 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석 기자 mskim@